

세계 각 광역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나믹스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가입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sty.co.kr 061320-7700, 7714

86만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과 200만 전남도민들의 최대 화합잔치인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목포 유달경기장등 목포시 일원에서 25~2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미래를 여는 녹색의 땅 전남! 꿈을 모아 세계로!’라는 구호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4천5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출전, 총 16개(정식 14개, 시범 1개, 전시 1개) 종목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여수시가 238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강진군이 233명, 해남군이 22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목별로는 축구 439명, 배구 306명, 배드민턴 301명 순이다.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씨름, 육상, 정구, 족구 등 14개 종목은 26~27일 이틀간 19개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씨름과 태권도는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승격됐으며 합기도는 시범종목, 줄다리기는 민속종목으로 열리게 된다.



전남도민생활체육전 25일 목포서 개막

22개 시·군 동호인 등 4천500여명 참가...16개 종목 열전 3일

전남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한중)는 이번대회를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분위기를 고취시켜 전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행사 준비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5일 대회 개회식에는 개식통고와 시·군 선수단 입장에 이어 시·군 풍물패 합동공연, 개회선언, 도민

현장 낭독, 도민의 날 시상, 스포츠 7330 실천다짐등 순서로 진행된다.

식전공개행사에는 가수 탁재훈과 탤런트 김승현 등이 소속된 연예인 축구단 ‘뉴웨이시스템’을 초청 유달경기장에서 사인회를 갖고 목포시 여자축구 동호인들과 친선축구를 펼친다.

◀ 지난해 강진서 열린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 (전남도 생활체육팀 제공)

또 ‘목포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극단 ‘얼수’의 대북 공연이 열리고 치어리더 연합팀의 생동감 넘치는 합동 치어리딩을 선보여 흥을 돋운다.

폐회식은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유달경기장에서 폐식통고, 성적발표, 대회기 전달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의 백미인 시·군선수 입장식에는 22개 시·군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가장 행렬을 벌이게 된다. 입장상은 지난해 여수시가 1위, 나주시 2위, 고흥군이 3등을 차지했다.

관련 대회가 열리는 유달경기장 주변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목포시의 홍보관이 운영되고 건강미인 선발대회와 팔씨름왕 선발대회, 줄넘기 오래하기, 전통민속놀이 등의 체험·참여 행사도 마련돼 수많은 도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러 프로축구 김동진 도움 1...팀승리 견인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김동진(25·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이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팀의 역전에 힘을 보탤다.

김동진은 21일 밤(이하 한국시간) 홈 구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트로프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키키와 2007 러시아 정규리그 27차전에 선발 출전, 0-1로 뒤지던 전반 35분 파벨 포그레브니야의 동점골을 도와 4-1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진이 포그레브니야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며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 다시 중앙으로 찢러 준 볼을 포그레브니야의 페널티킥 지점에서 왼발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김동진의 올 시즌 공격포인트는 4골3도움으로 늘었다. 김동진은 정규리그 21경기에 출전(전 경기 선발)해 2골2도움을 올렸고,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컵 4경기에서 2골, 러시아 컵 대회에서도 1도움을 기록했다.

제니트는 균형을 되찾아 온 뒤 전반 45분 콘스탄틴 지리아노프, 후반 15분 니콜라스 톰바에르츠, 34분 파티흐 테케의 연속골이 터져 대승을 거뒀다.

김동진은 68분을 뛰고 3-1로 앞선 후반 23분 일리아 막시모프와 교체됐다.

“이천수와 호흡 잘 맞는다”

팀 주전선수 마카이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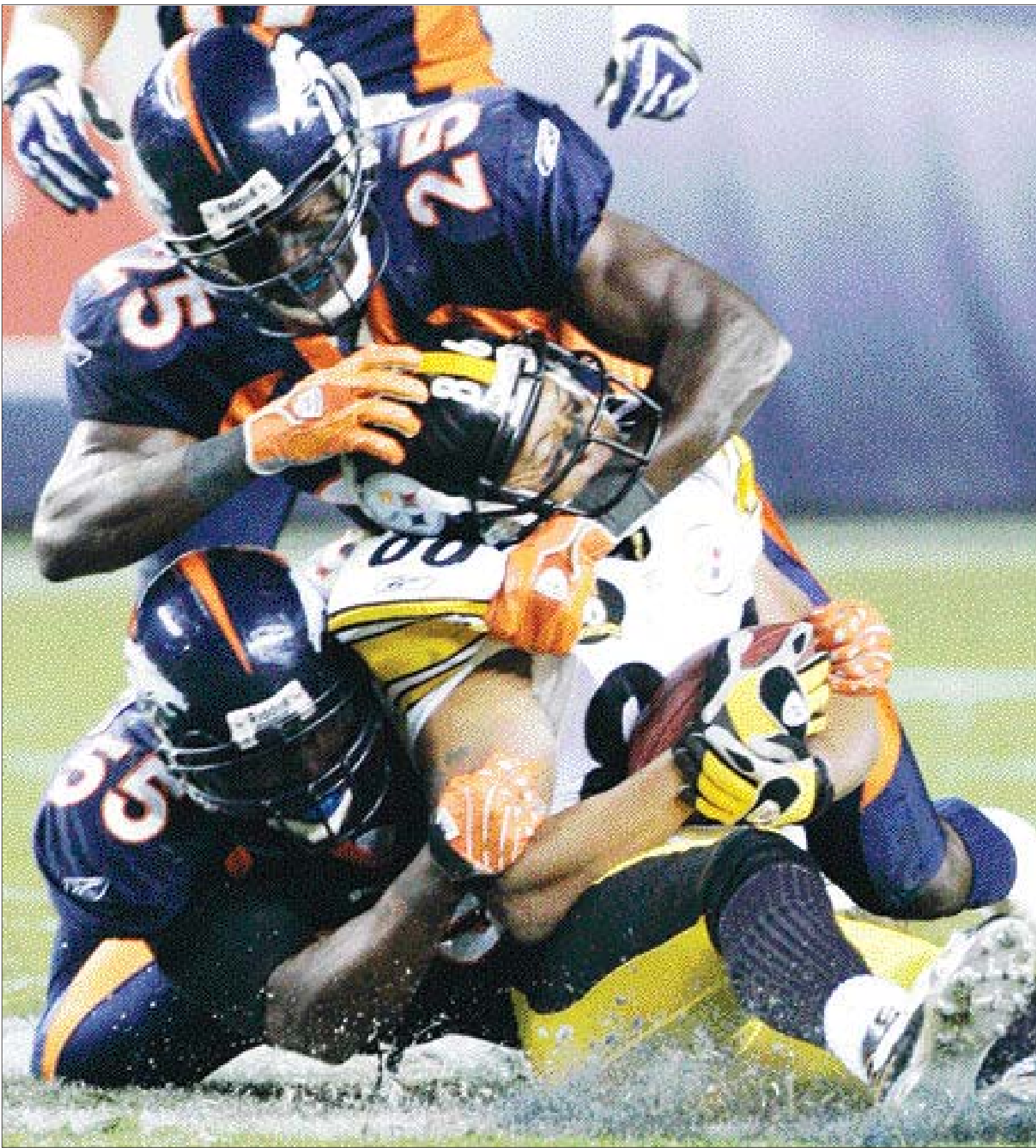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의 주전 스트라이커 로이 마카이(32)가 데뷔전을 치른 측면 미드필더 이천수(26)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네덜란드 유력지 ‘알헤메네 다흐블라드’는 마카이가 “호흡을 맞추는데 있어 느낌이 좋으며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이천수를 추켜 세웠다고 22일(이하 한국시간) 전했다.

마카이는 21일 새벽 이천수가 후반 15분 교체 투입되며 데뷔전을 치른 엑셀시오르와 정규리그 8차전 홈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천수는 후반 43분 왼쪽 측면을 돌파해 낮고 강한 크로스를 올렸고 마카이가 왼발을 살짝 갖다댔지만 골대 옆을 스치듯 빗나가며 데뷔전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릴 기회를 놓쳤다.

이에 대해 마카이는 “이천수의 크로스에 발을 갖다 댔지만 빗나가 너무 아쉬웠다. 올 시즌 골문 앞에서 처음 실수한 것”이라고 미안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인스 워드의 수난

22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 덴버 브롱코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하인스 워드(가운데)가 2명의 덴버 선수로부터 뒷쪽과 아래쪽에서 동시에 태클을 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성남 일화 VS 일본 우라와 AFC챔프리그 준결 2차전

내일 오후 7시 일본서

프로축구 K-리그에서 ‘지장(知將)’으로 손꼽히는 김학범(47) 성남 일화 감독은 2004년 12월 1일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당시 고(故) 차경복 감독을 보필하는 수석코치였던 김 감독은 200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준결 2차전 홈 경기에서 성남이 알 이타하드(사우디아라비아)에 0-5로 무참히 패하며 눈앞에 우승컵을 놓친 쓰라린 경험을 했다.

1차전 원정에서 3-1 승리를 거뒀던 성남은 홈에서 달미를 물리면서 1995년 아시안클럽선수권대회와 1996년 아시안슈퍼컵 우승 이후 8년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의 꿈도 산산히 부서졌다.

이번 시즌 역시 성남을 챔피언결정전으로 이끌며 K-리그 2연패 도전에 나선 김 감독은 2007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의 문턱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성남은 지난해 J-리그 챔피언 우라와 레드(일본)와 2007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24일 오후 7시 30분·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을 치르기 위해 22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성남은 3일 4강 1차전 홈 경기에서 우라와에 힘겨운 2-2 무승부를 거둔 만큼 이번 원정에서 원정 다득점 원칙을 감안, 반드시 이기거나 비겨도 2점 이상의 점수를 내야 한다. 1-1로 비기면 탈락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하인스 워드 ‘활발한 공격’

올 시즌 최고 78야드 전진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와이드 리시버 하인스 워드(31·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복귀전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78야드를 전진했다.

워드는 22일 콜로라도주 덴버 인베스코 필드에서 벌어진 NFL 정규시즌 7주차 덴버 브롱코스와 방문 경기에서 선발 출장, 7번 패스를 받고 78야드를 전진, 올 시즌 들어 가장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워드는 리시버와 야드 전진에서 올해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본격적인 케도에 진입했다.

워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는 4쿼터 막판 제이슨 엘럼에게 49야드 필드골을 허용, 28-31로 아깝게 패했다.

- K-리그 끝없는 추태 상대선수에 침 뱉고 심판향해 손가락 욕 팬들에게 거친 항의

텅빈 관중석 누굴 탓하라



올 시즌 프로축구 그라운드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추태 시리즈’로 망들리고 있다.

지난 달 22일 인천-수원전에서 인천 임중용과 수원 예두가 서로 얼굴에 침을 내뿔었고 예두가 임중용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전광판에 반복 상영됐다.

이에 자극받은 관중이 이물질들을 던져 그라운드가 난장판이 됐다.

9월26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전북-우라와(일본)전에선 중동 심판의 판과성 관정으로 분위기가 과열되자 전북 김재영이 주심에게 손가락 욕을 하다 종료 직후 퇴장당했다.

지난 3일 FA컵 준결승 전남-인천전에선 인천 방승환이 레드카드를 받아 옷통을 벗어던진 채 한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일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울산-대전전

에선 울산 골키퍼 김영광이 골대를 넘어 그라운드에 날아든 물병을 잡아 관중석으로 던졌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땐 늘 프로축구연맹이 솜방망이 징계를 한 탓에 화를 키우고 있다는 욕을 먹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방송환에게 내린 1년 출전 정지라는 징계는 약하지 않다. 이젠 프로축구연맹도 엄벌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

◀ 지난 2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6강 플레이오프 울산 현대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에서 대전 시티즌 서포터즈들이 그라운드에 물병 등을 던지자 양복을 입은 경기진행요원들이 이를 치우기 위해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나을 수밖에 없다. 선수구 추태를 보이는 원인도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심판, 상대 선수, 코치진, 서포터즈 등이 모두 결합돼 흥분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포터즈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구단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선수들의 잘못된 행위를 오히려 구단이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폭력사태 시 구단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